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5일)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개막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22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27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사진은 '부석사 오불회 괘불(보물)' 앞에서 내빈이 개막 테이프 컷팅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10면〉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법인 동국대 건학위 "악의적 선동 엄중 대처"

건학위원장 · 총장 명의 입장문
장학금 지급 확대 등 성과 뚜렷
초중고 법당 개선으로 심신 고취
"근거없는 비방, 학교 발전 저해"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최근 일부단체의 건학위 해체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8월 25일 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교 발전에 대한 성과가 뚜렷한 건학위에 대한 악의적 선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건학위는 "교육 환경의 변화로 종립학교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4월 건학위원회를 출범했다"고 건학위원회의 출범 연유에 대해 설명했다.

건학위에 따르면 출범 당시 자승 스님이 제시한 건학위의 목표는 '동국대의 발전이 곧 불교의 중흥이고, 불교중흥이 곧 대학의 발전'으로, 자승 스님이 솔선해 장학기금 10억여 원을 기탁해 바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연계해 학교와 사찰, 동문들이 30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전액장학생 35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됐으며, 지역미래불자 장학금도 2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

동국대 건학위는 "장학사업의 활성화로 학교 설립의 취지와 건학의 의미가 되살아나 많은 사찰의 스님과 불자들, 동국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의 혁신과 동국건학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정체성 확립은 건학위원회가 가야할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학위가 추진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당 개선은 전통문화와 불교소양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편안하게 전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는 건학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전국의 불교계 초 · 중 · 고등학교를 연계해 청소년 인재불사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건학위는 위원회의 명확한 활동과 성취에 대해 왜곡하는 선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건학위는 "위원회의 활동과 성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훼손하는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건학위원회의 결실로서 유익함을 나누고 있는 학교와 여러 기관의 노력을 폄훼하고 학업의 용기를 북돋아 가고 있는 학생들의 의욕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은 물론, 불자이고 동국의 동문 가족이라면 지금의 변화에 더 마음을 열고 늘 그래왔듯이 관심과 격려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보수·방재 자부담, 이번엔 '폐지'될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예비심사보고서 지적
전통사찰 재정 악화 고려해
자부담 20%서 10%로 완화
"일시 경감 아닌 폐지 필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시에는
비용 확보어려움으로 포기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선결과제로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시 자부담률 폐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보수 · 방재사업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당시 불교 공약의 하나로 '자부담률 철폐'를 제시했던 만큼, 지난 30여년 동안 전통사찰에 재정적 고충을 안겨온 자부담제도가 이번엔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자부담률의 일시적인 경감조치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심사보고서는 특히 "2023년부터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고,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의 자부담률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통사찰들은 사찰 유지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예산의 20%가 자부담으로 책정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어 왔다.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라는 자부담 비율이 책정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한데다, 국가가 보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자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건축물인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센서 등을 설치, 화재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훼손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전통사찰 중 상주 황령사와 대구 내원암 등 2곳이 자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현재까지 방재시스템 미구축 전통사찰 대부분이 자부담 비용 확보가 곤란한 소규모 전통사찰에 해당돼 사업완료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통사찰과 관련한 보수정비 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전통사찰 관련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부담률이 0%인데 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수사업의 자부담률은 20%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인정돼 국가가 지정하는 사찰로, 지정시 부동산 양도 및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등 사실상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지니고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인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부담률이 없는 반면, 전통사찰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시 자부담률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건은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이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인사 '국민힐링 프로젝트' 연다

9월 6일부터 템플스테이, 10월 9일 국민콘서트 개최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코로나19 팬더믹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지친 국민들을 위한 '국민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합천 해인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국민힐링 프로젝트'로 '국민힐링 해인사 템플스테이'와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는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동과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서 열리며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청소년 등 약 200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예약은 해인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참가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돼 건설예정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이 참여해 마음과 몸을 힐링하고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담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운스님 주지 취임을 환영합니다



• 범어사관음회
• 범어사다도회
• 범어사합창단
• 범어사보현회
• 범어사토요참선회
• 범어사금정총림포교사회
• 범어사어린이법회자모회
• 범어사어린이합창단후원회
•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울경법우회

범어사 신행단체 일동 합장